

여행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봉사활동

인도 콜카타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 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성녀 테레사의 무덤. 세계 자원봉사 활동의 메카인 콜카타 테레사 센터 1층에 있으며, 항상 추모자들로 붐빈다. 빅토리아 메모리얼. 콜카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식민지 시기인 1921년 빅토리아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연착한 기차, 녹초가 된 가족

우리 가족은 세계일주 여행을 계획하면서 관광지 중심이 아니라, 현지 주민을 만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도 방문하는 일정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참여형' 여행을 구상한 것이다. 관광지 중심으로만 다닐 경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여행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거창하게 말하면, '관광'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나(자아)'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부 정보의 흡입력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인도 콜카타는 이를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하지만 콜카타로 가는 여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바라나시에서 콜카타로 가는 기차의 출발 예정시간은 오후 7시 15분이었으나 기차가 들어온 것은 다음 날 새벽 3시였다. 지독한 안개와 취약한 시스템으로 8시간이나 연착한 것이다. 낡은 기차가 700km가 넘는 인도 북부 대평원을 가로질러 콜카타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40분. 21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부터 인도 여행까지 함께 참여했던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조카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일정까지 꼬여 버리고 말았다. 장기 기차여행에다 거리에서 사탕수수를 직접 짜서 파는 음료를 마신 것이 탈을 일으킨 것 같았다. 우리가 갖고 간 비상약으로도 차도가 없어 결국 병원을 찾아 진찰과 처방을 받고 난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애초 토요일 오후에 콜카타에 도착해 일요일 하루 쉬며 관광지를 돌아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마더 테레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은 계획보다 이를 늦은 수요일이나 참여할 수 있었다.

다국적 봉사활동의 메카

콜카타는 세계 자원봉사 활동의 메카다. 평생 빈민과 어린이를 돕는 활동을 펼쳐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성녀(聖女) 칭호까지 얻은 테레사 수녀의 뜻을 잇는 봉사활동이 펼쳐지는 곳이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지만,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 구시가지의 남루한 길을 따라 테레사 센터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의 봉사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많았지만, 한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고, 일본인들도 보였다. 7시가 되자 참가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아주 간소하게 빵과 바나나, 짜이(밀크티)로 이루어진 '테레사의 아침 식사(Teresa's Breakfast)'지만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녀가 나와 간단한 기도 후에 이어 주요 일정과 공지 사항을 소개한 다음, 봉사활동 장소로 떠나기 위해 센터를 나섰다. 처음 온 참여자들에게는 즉석에서 장소를 배정해 주었다. 우리 가족은 어린 장애아들이 지내는 다야단(Dayadan)으로 배정되었다. 콜카타에는 7개의 자원봉사 시설이 있으며, 시설의 수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배정해 주었다. 장소를 배정받은 다음, 다른 참여자들을 따라 버스와 오토릭샤를 갈아타고 다야단에 도착했다.

우리가 배정받은 다야단 2층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6~14세 아이 30여 명이 지내고 있었다.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이 방치된 아이들이었다. 스스로 걷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시설의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도와줘야 한다. 봉사활동은 오전에만 진행된다. 시설에 도착해 이들을 돌보거나 빨래 또는 청소를 한 다음, 잠시 쉬었다 점심 식사를 도와주는 게 주요 일이다. 그런 다음 아이들을 각자 침대에 눕혀 주면 일정이 끝난다.

대학교 2학년인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 아들, 그리고 조카는 뜻밖에 빠른 적응력과 순발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큰아들을 앞세우고 시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빨래를 돕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설의 인도인 아줌마, 외국인 봉사자들과 호응을 맞추어 옷과 이불을 빨아 옥상에 거미줄처럼 쳐놓은 줄에 널었다. 그렇게 봉사활동 첫째 날 일정이 지나갔다.

아이들의 달라진 눈동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막막했던 봉사활동에도 금방 익숙해졌다. 어디로 가라거나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지만, 모두가 봉사의 한마음을 가진 데서 나오는 자율과 협력의 힘이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된다. 우리 가족도 첫날 활동을 마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오리엔테이션은 대략 20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묶어 영어로 진행되는데, 한국인 참여자들이 가장 많고 숫자도 20명을 넘어 별도로 진행되었다. 방학을 이용해 여행과 봉사를 겸해 이곳을 찾은 대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은 자원봉사가 없는 날이어서, 우리 가족은 수요일과 금, 토요일까지 3일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봉사활동 둘째 날인 금요일에는 빨래가 엄청 많아 우리 가족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 대역섯 명이 모두 빨래에 매달려야 했다. 목요일에 자원봉사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빨래가 쌓여 있었다. 빨래를 마치고는 옥상 바닥까지 깨끗하게 물청소를 했다. 다야단의 인도인 아줌마가 아이들을 “커즌! 커즌!” 하고 부르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어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다.

휴식 시간에 짜이를 한 잔씩 마시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 점심 식사 도와주기가 시작되었다. 봉사자들이 각각 1명씩 맡아서 식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미 첫날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배식 준비가 되면 한

명씩 맡아 식사를 도와주었다.

일부 아이들은 식사를 아주 잘했지만, 일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다. 우리 아이들도 각자 한 명씩 맡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맡은 아이는 계속 잠만 자려 했다. 둘째는 죽 같은 음식을 뜬 수저를 입가에 가져가서는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정성을 다했다. 평소 덜렁거리던 모습과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그는 아이의 식사를 도와주는 데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첫째 아들과 조카도 각자 맡은 아이에 집중했다. 그들의 눈빛에 진지함과 간절함이 넘쳤다. 컴퓨터 게임 등 흥밋거리에 관심이 있던 그들에게서 평소엔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다. 입 주변의 음식물을 닦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아이들을 안아 각자의 침대에 누일 때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활동은 셋째 날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후에는 유적지, 박물관 등을 신나게 돌아다녔다. 대영제국의 영화를 간직한 빅토리아 메모리얼 등 기념비적 건축물과 낙후한 거리와 건물이 혼재해 있었다. 동방의 시성(詩聖) 타고르 기념관, 살아 움직이는 식물을 보는 듯한 동양 최대의 보리수인 그레이트 반얀트리, 항구인 다이아몬드 하버, 신도시인 솔트레이크까지 돌아보았다. 봉사의 뿌듯함 때문인지, 관광지를 돌아보는 아이들의 눈동자도 살아났다. 조카도 배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되었다.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은 일종의 결핍과 불만족의 느낌을 수반하게 된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결핍이나 불만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반면 봉사는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나누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봉사의 출발이 충족이요 만족인 셈이다. 이게 봉사의 매력이요, 비밀코드였다. 아주 짧은 ‘맛보기’ 봉사활동이었지만, 그 어떤 유명한 유적보다 깊은 의미를 남긴 여정이었다.



콜카타 구시가지. 수리한 흔적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인력거가 주요 교통 및 물자 운송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콜카타 뉴 마켓의 인파. 여행자들의 거리인 중심부 ‘서더 스트리트’ 인근에 있으며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